• 1교시 언어 영역 •

정 답

1	②	2	②	3	③	4	②	5	①
6	④	7	②	8	③	9	④	10	⑤
11	⑤	12	⑤	13	①	14	②	15	④
16	④	17	②	18	②	19	⑤	20	④
21	⑤	22	②	23	②	24	④	25	③
26	③	27	⑤	28	③	29	④	30	②
31	③	32	①	33	③	34	④	35	③
36	①	37	④	38	②	39	⑤	40	③
41	①	42	⑤	43	⑤	44	①	45	④
46	①	47	④	48	②	49	②	50	④
51	④	52	①	53	①	54	③	55	⑤
56	②	57	①	58	①	59	⑤	60	③

해 설

[듣기]

1. [출제의도] 안내하는 말을 듣고 세부 정보 확인하기

이제 관광 안내원이 돌하르방을 소개하는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관광 안내원 :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석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는 학생 있어요?
학생 : 돌하르방이라고 하지 않나요?
관광 안내원: 예, 맞습니다. 혹시 '하르방'이 무슨 뜻인지는 아세요?
학생 : 제주도에서는 '할아버지'를 '하르방'이라고 부른다고 들었어요.
관광 안내원 : 그렇죠. '하르방'은 '할아버지'의 제주 사투리예요. 그러니까 돌하르방은 '돌로 만든 할아버지'란 의미죠. 지금 제주에는 이런 돌하르방이 모두 마흔다섯 개가 있는데, 제주 시내와 대정읍, 그리고 성읍리(城邑里) 등지에 있답니다.
학생 : 어, 그런데 이 돌하르방은 사진에서 본 것과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관광 안내원 : 네, 여러분은 아마도 돌하르방이 모두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지역에 따라 돌하르방의 생김새는 다르답니다. 제주시내에 있는 제주목 돌하르방이 여러분이 기억하는 돌하르방의 이미지와 가장 비슷할 거예요. 제주목 돌하르방은 부리부리한 눈, 이마의 주름과 볼의 근육이 두드러지고요, 몸집이 커서 위엄 있게 보인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것이 바로 정의현 돌하르방입니다. 이 돌하르방은 제주목 돌하르방과 비교할 때, 몸집에 비해 얼굴이 상대적으로 크고, 얼굴 형태는 둥글넓적하고 단순한 편이죠. 또 두 손을 배 위에 공손히 얹고 있는데, 오른손이 왼손보다 살짝 위에 놓여 있죠. 가장 큰 특징은 눈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 외 제주의 돌하르방에는 대정현 돌하르방도 있어요. 대정현 돌하르방의 특징은 안경을 쓴 것처럼 눈이 튀어 나왔다는 겁니다. 가지런히 펼친 양손을 가슴 위아래로 공손히 얹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중에는 두 손을 깍지 낀 듯이 보이는 것도 있어요.

관광안내원이 보여주는 것은 정의현 돌하르방이다. 관광 안내원은 정의현 돌하르방이 몸집에 비해 얼굴이 크고 얼굴 형태가 둥글넓적하고 오른손이 왼손보다 살짝 위에 놓여 있으며, 눈꼬리가 조금 올라가 있다고 했으므로, 이에 부합되는 사진은 ②이다. ①과 ⑤는 제주목 돌하르방, ③과 ④는 대정현 돌하르방이다.

2. [출제의도] 강연을 듣고 화자의 입장 추리하기

이번에는 동양철학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요즘 서점에 가면 동양 철학에 대한 책들이 무척 많습니다. 동양 철학이 오늘날 다시 부흥기를 맞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그 첫째는 개인주의입니다. 명상을 통한 개인적 수양에만 관심을 갖고 사회 문제에는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노장 사상, 개인의 도덕성만 강조하는 유교도덕주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의 측면을 무시하고 개별적 존재로서의 '개인'만을 강조하는 이런 경향의 확산은, 사회성의 부정과 그에 따른 실천성의 결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내 옷만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아가기 쉬우며, 부정과 불의를 보고서도 냉소만 할 뿐 근본적인 해결은 개인의 수양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직관적 체험을 바탕으로 성인이나 도사가 되기를 바랄 뿐 사회 구조나 역사는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비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올바른 역사 의식을 지니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합니다.
유교의 본래의 목적은 모두가 어우러지는 대동(大同) 세계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를 닦고 나아가 사회에 참여한다는 『논어』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이 바로 그것입니다. 노장 사상의 회의와 부정, 냉소 또한 소극적이지만 현실 세계의 모순을 향한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외됨 없이 모두가 주체로 어우러지는 참 평등 사회를 위해 이를 가로막는 사회 제도와 허위의식을 부정하고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래의 목적이 왜곡되고 개인주의와 신비주의가 만연하는 상황에서, 공자나 노자, 장자가 오늘 우리 현실 속에 온다면 현재 유행하는 자신들의 사상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릴까요?

화자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동양철학이 두 가지 문제점(개인주의, 신비주의)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 중 '개인주의'는 '사회성의 부정과 실천성의 결여'로 이어지고, '신비주의'는 '사회 현실로부터 눈을 돌리게' 한다고 했으므로, 화자가 비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3. [출제의도] 강의를 듣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이번에는 강의를 들려드립니다. 이 문제는 물음과 답지를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누군가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또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어야 하는데, 이를 공감적 듣기라고 합니다.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체의 판단을 유보한 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 상대방으로 하여금 기꺼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감적 듣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먼저, '집중하기'를 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집중해서 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런 반응 없이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면 말하는 사람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여 주거나 하는 등의 몸짓과 "그래?", "정말?", "맞아", "그래서" 등의 음성적 반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다음은 '격려하기'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도록 상대방을 격려하는 것이죠. "좀 더 이야기해 봐.", "좀 자세히 말해 주겠니?"와 같은 말로 계속 대화를 이끌어간다거나 상대방이 한 말 가운데 주요한 어휘나 표현들을 반복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은데, "예/아니오"로 답해야 하는 닫혀진 질문보다는 "그것에 대한 네 생각은 어떠니?"와 같은 열려진 질문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영하기'가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의 관점을 직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들은 내용을 자신이 이해한 자신의 말로 다시 진술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 견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물음과 답지를 들려 드립니다. 어떤 학생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할 때, 이 학생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 중 '공감적 듣기'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학생 : 요즘 너무 힘들어요. 3학년이 되니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학생의 말에 대한 상담자의 반응을 들려드립니다.

첫 번째 반응 : 그래. 네 말대로 정말 힘들어 보이는구나.
두 번째 반응 : 맞아. 나도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너처럼 힘들었었어.
세 번째 반응 : 힘들더라도 참아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란다.
네 번째 반응 : 무엇이 그렇게 힘들고 신경이 쓰이는지 말해 줄 수 있겠니?
다섯 번째 반응 : 공부할 양도 많아지고 진로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정말 힘들지?

강의에 의하면 공감적 듣기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며, 일체의 판단을 유보한 채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③은 이러한 요건에서 벗어난 것이다.
①은 '집중하기'와 '격려하기', ④는 '격려하기', ⑤는 '반영하기'가 각각 쓰였다. ②는 '집중하기'와 함께 '격려하기'와 '반영하기'가 변형되어 쓰이고 있다.

4. [출제의도] 강의를 듣고 대화 내용 분석하기

이번에는 강의를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화는 대개 일정한 단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러한 대화 구조 모델 중의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먼저 '시작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대화 참가자들은 인사를 주고받거나 본격적인 대화로 들어가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규칙 협상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규칙에 대해 협상하는 단계인데, 무엇에 대해, 어떻게, 얼마나 대화를 할 것인가 등에 대해 협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규칙 확정 단계'입니다. 대화 참가자들이 그 규칙에 대해 합의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화에서는 규칙을 협상하고 확정하는 단계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본격적으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계로 이를 '전개 단계'라고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종결 단계'로, 대화를 마무리짓거나 주제를 바꾸는 단계입니다. 잘 들었습니까? 이번에는 대화의 한 장면을 듣고 이 대화를 분석해 봅시다.

남자 : 정민아, 안녕. 요새 잘 지내니?
여자 : 물론이지. 그런데 영수야, 나 너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남자 : 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집에 가야 하는데.
여자 : 한 5분이면 돼. 간단한 거야.
남자 : 급한 일이 있다고 했잖아.
여자 : 그러면 3분이면 되겠어?
남자 : 좋아. 용건만 간단히 말해.
여자 : 지난 번에 네가 아주 감동적이라고 했던 영화, 그 비디오 좀 빌려줄 수 있니? 영화 감상문

을 써야 하는데, 보러갈 시간도 없지만 마땅하게 볼만한 것도 없어.
남자 : 빌려주는 건 어렵지 않지. 그런데 지금 당장 필요하니? 그러면 우리집에 같이 가자. 대신 꼭 돌려줘야 해. 지난번처럼 애먹이지 말고.
여자 : 알았어. 고맙다. 그런데 너 이번 일요일에 시간 있니?
남자 : 오후에는 가능한데…… 뭐 하려고?

강의에서 제시된 대화에는 규칙 협상 단계와 규칙 확정 단계가 거의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이 단계에서 여자와 남자는 '얼마나'와 '어떻게' 즉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만 협상을 하고 있지, '무엇에'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5-6] 이번에는 토론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5번과 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 : 최근 인터넷 지식 검색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남자·여자 : 안녕하세요.
진행자 : 먼저 박정연 교수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여자 : 네. 오늘날과 같은 인터넷 시대에서 지식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엄격한 논리와 체계를 갖춘 것만을 의미할 수 없습니다. 지식은 실용성을 그 바탕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생활에서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충분히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인터넷 지식 검색은 지식의 대중화가 이미 막을 수 없는 추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인터넷 시대의 지식은 네트워크로 연결된 수많은 개인들이 물어다 놓은 정보로 이루어진 거대한 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자 :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윤상인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남자 : 네. '지식 검색'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지식 검색창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내용을 보면 잡학이나 생활의 지혜에 불과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지식이라면 마땅히 그것이 공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래야만 책임 소재도 분명하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를 재조직하고 논리를 세워 체계화한 지식을 생산하는 행위가 단편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인터넷 시대라 하더라도 변해서는 안 될 것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인터넷의 지식 검색은 지식의 생산·유통과 관련하여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말씀해 주시죠. 먼저 박정연 교수님.
여자 : 과거에는 지식의 생산과 보급을 특정 계층이 독점했고, 그에 따라 지적인 훈련을 거치지 못한 대중들이 지식에 접근한다는 것은 어렵고도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대중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들은 다릅니다. 대중 스스로가 지식 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지식 검색은 기존의 지식 생산과 유통의 맹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행자 : 이번에는 윤상인 교수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 : 인터넷이라는 대중 매체는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생산하여 유통시키고, 공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이러한 현상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지식의 생산과 유통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지식을 발견하고 창조해 내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의 혹독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독서와 주체적인 사고를 통해 체험과 정보를 조직하고 논리와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또한 지식의 생산과 유통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런 연마 과정을 거친 전문가만이 지식을 올바르게 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행자 :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잠시 토론을 멈추고 방청객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화자의 관점 차이 추론하기

이 토론에서 여자 학자는 지식을 '과거와 같이 엄격한 논리와 체계를 갖춘 것'만으로 한정할 수는 없으며, '실생활에서 쓸모가 있는 것'이라면 충분히 지식이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비해 남자 학자는 지식은 '공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이어야 하며, '정보를 재조직하고 논리를 세워 체계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두 학자는 '지식의 개념'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지식의 생산이나 유통의 주체,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터넷 지식 검색을 두고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6. [출제의도] 토론을 듣고 주장의 논거 파악하기

여자 학자는 정보도 지식이라는 전제 아래, 오늘날의 대중들은 스스로가 지식 생산과 유통의 주체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인터넷 지식 검색은 기존의 지식 생산과 유통의 맹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④가 여자 학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의견이다.

7. [출제의도] 계획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수정 및 보완하기

'ㅂ'은 기술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 기술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감이므로 제1부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산업 현장에 기술 인력이 부족한 실태를 입증하거나, 기술자에 대한 대우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를 제시하면 기사 내용에 객관성을 부여하여 기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또 제2부에 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지어 제3부에 기술 인력 양성 방안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여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연재 기사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할 때, '실태 - 원인 - 외국의 모범 사례 - 대책'의 순으로 기사를 구성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제3부와 제4부의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ㅅ'은 기술 개발에 관한 글감이므로 제4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인력 관리 정책과는 거리가 있다.

8. [출제의도] 논지 전개 과정에 따라 내용 생성하기

③의 '신용 불량자에 대한 처벌 방법의 다양화'는 사후 처리 위주의 해결 방식이다. 나머지는 개인의 책임으로 보지 않는 해결 방식이며, 사전 예방 차원의 대책이므로 오답이다.

9. [출제의도] 그림을 보고 연상하여 광고 문구 만들기

제시된 그림은 헌혈할 때의 손동작을 보여주는 것이다. 헌혈할 때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하는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데, 그 동작을 통해 생명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시든 장미꽃이 활짝 핀 장미꽃으로 변하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①은 시든 꽃이 활짝 핀 장미꽃으로 변하는 것을 마술과 같다고 연상한 것이며, ②와 ③은 헌혈할 때의 손동작과 장미꽃의 상징적 의미에 주목한 연상이다. ⑤는 헌혈할 때의 손을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손으로 연상한 표현이다. 그러나 ④는 장미꽃의 상징적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연상이다. 또 헌혈을 홍보하는 공익 광고의 문구로는 어울리지 않는다.

10. [출제의도] 개요 작성 과정 평가하기

다른 학교의 모범적인 프로그램을 조사한 것은 '본론3'에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11. [출제의도] 제시된 전개 방법에 따라 서론 쓰기

⑤번을 보면, 사이버 공간이 자유 공간으로 환영받고 있는 현상을 제시한 후, 사이버 공간의 무제한적 자유 때문에 비윤리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 다음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논제인 '사이버 윤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나머지 답지는 논제에서 벗어나 있거나, 내용 전개 방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2.1 [출제의도] 제안하는 글을 쓰고 평가하기

학교 행정적인 측면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진술은, 제안을 시행하는 데 따른 예상 문제점을 언급함으로써 예상 독자인 교장 선생님의 입장을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다.

3.1 [출제의도] 어법에 맞는 문장 쓰기

②는 '만약'과 '~않아서'의 호응이 부적절하다. '만약'은 가정의 의미를 갖는 부사어이기 때문에 '~않았다면'과 호응을 이룬다. ③은 '바뀌게' 하려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 되었다. ④ 농사를 망치게 된 원인은 저수지에 대한 관리 소홀과 무관심이므로 이를 분명히 밝혀 주어야 한다. 따라서 '풍년 농사를 위하여 만들었던 저수지에 대한 무관심으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올 농사를 망쳐 버렸습니다.'가 어법에 맞는 문장이 된다. ⑤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부족절하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가 되어야 한다.

4.1 [출제의도] 인접 어휘의 의미 변별하기

'해명(解明)'은 '까닭이나 내용을 풀어서 밝힘'의 의미이며, '발언(發言)'은 '말을 꺼내어 의견을 나타냄 또는 그 말'의 의미이다. '진술(陳述)'은 '일이나 상황에 대하여 자세하게 이야기함', 또는 법률 용어로서, 구체적인 법률 상황이나 사실에 관한 지식, 관련되는 상황을 알리는 일을 의미한다.

[15~19]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5.1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창작 의도 추리하기

이 글은 지식인의 눈에 비친 1930년대 경성의 풍경과 그 속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작가 자신이 자신의 창작 기법에 '고현학'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것처럼, 경성 시내의 풍경과 사람의 모습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
문명의 이기들이 인간의 삶을 억압한다는 것이나, 작고 소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 현실의 비극을 초월하여 살아가고 싶다는 것, 사람들의 심층 심리를 분석한다는 것 등은 이 작품의 초점이 아니다. 작가는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듯이 작품 속에서 그려내고 있다.

6.1 [출제의도] 외부 자료에 근거하여 해석의 적절성 평가하기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식민지 사회의 변화 조짐을 보여준다고 볼 근거는 될 수 없다. 백화점에 나들이 나온 행복한 가족의 모습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의 행복을 의미하는 소재로 쓰인 것이다. 이 부분에서 구보가 추구하는 행복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주는 행복은 아니다. 그래서 구보는 이들의 행복을 업신여기려는 마음을 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신이 갖지 않은 일상적이고 안정적인 삶이 주는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미치자, 그들 나름대로의 행복을 축복해주려는 것이다.

7.1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인물의 정서 추리하기

다른 사람들이 모두 각자의 목적지로 떠난 후, 구보는 자신은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보고 있다. 이와 가장 유사한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은 ②이다. ②는 김광균의 <와사등>의 일부로서, 도시 한 복판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형상화된 것이다.
①은 박팔양의 <밤차>의 일부이다. 이 시는 추방당하는 유랑민의 비애를 거친 호흡과 직설적인 어법으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③은 박용철의 <떠나가는 배>의 일부이다. 이 시는 젊은이가 암울한 일제 식민지 현실을 눈물로만 보낼 수 없다는 강변(强辯)을 담은 것으로 고향과 정든 사람들을 두고 떠나는 서글픈 심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④는 양주동의 <조선의 맥박>의 일부이다. 이 시는 일제 치하의 암담한 현실에서 민족 부활의 미래를 '튼튼한 젊은이', '어린 학생' 등에서 발견하며 희망을 불어넣고 있는 작품이다. ⑤는 윤곤강의 <지렁이의 노래>의 일부이다. 이 시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두 동강으로 몸뚱아리가 잘려도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지렁이를 통해서 민족의 처지를 노래한 작품이다.

8.1 [출제의도] 탐구 학습을 통해 어휘 구성 방식 파악하기

'새'는 관형사로서 띄어써야 하므로, '새옷'은 '새옷'으로 써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접두사이므로

어근에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

9.1 [출제의도] 소설을 읽고 사건의 의미 추리하기

<보기>에 제시된 조건은 아낙네의 행동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으라는 것과 오늘날의 어떤 세태를 반영하는 것인가를 밝히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은 ⑤이다. ⑤의 첫 번째 문장은 아낙네의 행동을 인간의 본성과 관련지은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세태를 분석한 것이다. ①, ③, ④는 세태에 대해 언급한 부분이 없다. ②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빠뜨렸다. 아울러 ③과 ⑤를 제외한 나머지 선지들은 아낙네의 행동의 의미를 잘못 파악한 것들이다.

[20~23] 과학동아, '동물의 의사 표현 방법'

20. [출제의도] 글을 읽고 세부 정보 확인하기

이 글에서 동물의 의사 표현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색깔이나 모습, 행동을 통한 시각적 방법이나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 냄새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 중에서도 소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경보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색과 관련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21. [출제의도] 글을 읽고 독자가 보인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동물의 의사 표현 수단 세 가지 방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제시하고 있는 글이다. 하지만 이러한 의사 표현 방법의 장단점을 대조하며 서술하고 있지는 않다.

22. [출제의도] 글을 읽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동물의 의사 표현을 알아 보는 방법은 동일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반복되는 행동을 관찰한 경우, 일단 의사 표현으로 간주하며, 그 의미는 상황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반복 관찰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알아낼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다면 <보기>의 사례에 대한 동물학자의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가 된다. 일회적인 행위를 통해 그것이 어떤 의미를 표현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그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인지를 먼저 알아 보아야 의사 표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해야 적절한 답변이 된다.

23. [출제의도] 글을 읽고 세부 정보 구조화하기

시칠리드의 신체 일부에 점이 생기는 것은 기분이 안 좋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울한 기분을 풀어 볼까'라는 의미는 적절하지 않다.

[24~28] 베른하르트 A. 그림, '도덕적 가치에 대한 지진계-양심'

24. [출제의도] 글을 읽고 논지 전개 방법 및 과정 파악하기

이 글은 권위적 양심과 진정한 양심(자율적 양심)을 대비하여 진정한 양심의 본질과 의의를 밝힌 글이다. 글쓴이는 권위적 양심을 비판하면서 진정한 양심(자율적 양심)의 본질과 의의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비항에 대한 비판'이라는 항목에는 '권위적 양심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야 한다. 글쓴이는 자율적 양심을 진정한 양심으로 보고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하고 있으므로 '자율적 양심의 한계'를 지적한다는 것은 글의 내용과 다르다. 따라서 <보기>에서 수정해야 할 항목은 ④이다.

25. [출제의도] 글을 읽고 문학 작품에 적용하여 창작 과정 추리하기

<보기>에 제시된 시에서 '동지적이고 격렬한 싸움'이라는 표현은 양심을 지니고 살아가는 화자가 내적으로 겪고 있는 인간적인 번뇌와 갈등을 의미한다. 이 표현은, 양심을 지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도 있지만 그 양심은 곧 내 삶의 동지이기도 하다는 인식과도 연결된다. 따라서 이 구절을 '외적 권위에 대한 의존성'으로 파악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글을 읽고 세부 정보 확인하기

본문에 따라 진정한 양심의 속성과 권위적 양심의 속성을 대비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적임 : 타율적임], [비판적임 : 무비판적임], [보편적 가치에 부합 :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함], [타인을 배려함 : 타인을 배려하지 않음] 등.

③의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판단인가?'라는 것과 관련지어 볼 수 있는 '진정한 양심의 속성'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7. [출제의도] 글을 읽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⑤에서 일본 군인들은 주변 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스스로 옳다고 믿고 있는 경우이다. 즉 그들은 자기 집단의 논리에 따라, 그 행동이 옳다고 믿으면서 악행을 저지르며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이다.

28.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③ 경직 : 몸 따위가 굳어서 뻣뻣하게 됨. 사고방식, 태도, 분위기 따위가 부드럽지 못하여 융통성이 없고 엄격함.

[29~34] (가) 두보, '춘망' (나) 김소월, '삭주 구성' (다) 정호승, '또 기다리는 편지'

29. [출제의도] 시를 읽고 작품들의 공통점 파악하기

(가)에는 전란으로 인하여 헤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나)에는 갈 수 없는 '삭주 구성'에 대한 그리움이, (다)에는 '그대'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세 작품 모두 대상과의 단절로 인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30. [출제의도] 시를 읽고 시적 화자의 태도 추리하기

삭주 구성은 '물 맞은 제비도 비에 걸려 돌아 오는 산 너머 육천 리'라는 구절을 통해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새조차도 갈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을 시적 화자가 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 삭주 구성은 시적 화자가 꿈에도 그리던 곳이고 임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그곳을 갈 수 없기에 시적 화자는 몹시 슬퍼하며 탄식하고 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극복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비탄에 잠겨 있는 것이 된다.

31. [출제의도] 시를 읽고 다른 시와 비교하여 감상하기

시적 화자는 전란으로 인해 황폐화한 인간사의 모습과 가족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리고 <보기> 시의 화자는 나라가 부서졌지만 자연만이 그대로인 상황에 눈물을 흘리고 있다. 따라서 <보기>의 시가 ㉮보다 시적 화자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32. [출제의도] 시를 읽고 시적 화자의 상황과 정서 추리하기

가족의 소식이 만금보다 값지다는 것은 전란으로 인해 헤어져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상황과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은 ①이다. ①에서도 고향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고향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어 밤을 혼자 새우고 있는 심정을 드러내었는데, 이것은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다.

33. [출제의도] 시를 읽고 시어의 함축적 의미 추리하기

'꿈'은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공간에 가고 싶은 심정을 그나마 해소해 보려고 시도하는 세계일 뿐이지 시적 화자의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은 아니다. 시적 화자의 소망이 성취되는 공간은 '삭주 구성'이 된다.

34. [출제의도] 시를 읽고 시적 공간의 성격 파악하기

'삭주 구성'이 시적 화자가 지향하는 공간이라면, '섬기슭'은 시적 화자가 처해 있는 공간이다.

[35~38] 장경섭, '세상을 보는 눈'

35. [출제의도]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여 다르게 표현하기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은 관점에 근거하여 사회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③에서 '보는 눈'은 글쓴이가 말하는 '관점'과 가까운 말이다. 이렇게 보면 글쓴이는 사회를 제대로 보려면 그것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6. [출제의도] 글을 읽고 관점을 파악하여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보기>는 청년 실업의 원인을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적인 면에서 분석한 것이다. 즉 오늘날의 청년 실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가 대외 의존적이라는 구조적인 한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37.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와 쓰임 파악하기

부정 가치어는 인간이 혐오하거나 인간에게 해로운 현상과 관련된 어휘로 그 의미들이 부정적인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상황에만 사용한다. 그런데 ④의 '비판'은 '비평하여 판단함' 또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의미나 부정적인 의미를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중립 가치어라 할 수 있다. 만약 ④에서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비판' 보다는 '비난'을 사용해야 한다.

38. [출제의도] 글을 읽고 사례의 적절성 평가하기

㉡에서 '사람들이 변화의 추세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사회를 변화 과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사회의 변화 추세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②에서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서서 집값이 하락한다'는 것은 사회의 변화, 즉 관계나 구조의 변화라고 볼 수 없다.

[39~42] 김탁한, 천둥소리

39. [출제의도] 드라마 대본을 읽고 한시의 의미 파악하기

허균은 백성들이 헐벗고 불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그늘진 웅덩이'에,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자신을 '천 년 묵은 이무기'에 비유하여 표현하고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 허균이 광해군은 왕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임금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백성의 편에 설 수 없다고 한 점으로 보아, 그가 올라가고자 하는 세계인 '신선 세계'는 광해군과 함께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라 볼 수 없다.

40. [출제의도] 작중 상황을 한자성어를 활용하여 표현하기

침소봉대(針小棒大)는 바늘만 한 것을 몽둥이만 하다고 한다는 뜻으로, 심하게 과장하여 말하는 것을 비유하여 이르는 말이다. S# 17에서 허균은 당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을 심하게 과장하여 말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요지부동(搖之不動) : 흔들어도 조금도 움직이지 않음.

허심탄회(虛心坦懷) :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솔직함.

백년하청(百年河淸) : 황하의 물이 맑기를 기다린다는 뜻으로, 아무리 바라고 기다려도 실현될 가망이 없음을 이르는 말.

천양지차(天壤之差) :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란 뜻으로, 사물이 서로 엄청나게 다름을 이르는 말.

41. [출제의도] 드라마 대본을 읽고 주요 소재의 의미 추리하기

'술'은 등장 인물인 광해군의 심리를 보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소재이다. 광해군은 친구이자 스승인 허균이 반역을 도모했다는 보고를 듣고 괴로워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많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따라서 ㉠의 술은 이러한 광해군의 고뇌를 보조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반역을 인정하고 자신의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죽음을 선택하는 허균을 보며,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의 술은 허균을 살리고 싶은 광해군의 마음과, 허균에 대한 광해군의 사랑, 그리고 사랑하는 허균을 이대로 죽음의 길로 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2. [출제의도] 드라마 대본을 영상화하기 위한 방안 토의하기

ⓔ에서는 자신이 아끼는 허균을 처벌할 수밖에 없는 광해군의 고뇌가 드러나는 어조가 적절하다.

[43~46] 김광해, '국어 지식 탐구'

43. [출제의도] 글을 읽고 전개상의 특징과 효과 파악하기

이 글은 단어간의 유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정의하여 내용의 정확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②), 유의 관계의 여러 유형이나 유의 관계를 검증하

는 각각의 방법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①), 유의 관계의 유형이나 교체 검증의 방법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③), 서두에 중심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④) 그러나 이 글은 설명문으로 의견에 해당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⑤와 같은 진술은 바르지 않다.

44. [출제의도] 글을 읽고 새로운 정보 파악하기

②는 ㉮의 자료(유의 관계의 유형 분류) 중, 고유어와 외래어의 유의 관계에서, ③은 긍정어와 부정어 또는 직접 어법과 완곡 어법에서, ④는 일반어와 특수어 또는 표준어와 방언에서, ⑤는 직접 어법과 완곡 어법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①은 염화나트륨과 소금이 동일한 지시 대상을 가진다는 점에서 잘못된 내용이다.

45. [출제의도] 방법과 원리를 활용하여 언어 자료 분석하기

'뛰다'가 '높이 솟구쳐 오르다'의 뜻으로 쓰이면 '앞으로 빨리 나아가다'는 뜻의 '달리다'와는 바꾸어 쓸 수 없으므로 유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아울러 '물가가 뛰다/*달리다.'는 예문으로 보아 '뛰다'가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무생물 주어를 가질 때에도 '달리다'와 유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

46. [출제의도] 글을 읽고 원리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대립 검증은 반대말을 이용하여 의미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작다-적다'의 반대말이 '크다-많다'여서 의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반대말이 같거나 반대말이 달라도 의미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47~51] 강홍구, '미술관 밖에서 만나는 미술 이야기'

47. [출제의도] 글을 읽고 핵심 정보를 파악하여 홍보 문구 만들기

이 글은, 사진이 정지된 한 순간의 이미지를 담은 기록물이지만 상징성이 매우 강하여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하여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요지를 담고 있다. 이를 글쓴이는 '세계와 관계를 맺는 통로'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④는 사진을 통해서 세계에 대하여 생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그 근거(즉, 사진의 속성)을 밝힌다는 의미로서, 글의 중심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할 수 있다.

48. [출제의도] 글을 읽고 논지를 파악하여 사진 해석하기

이 글에서는, 사진에는 찍는 사람이나 찍히는 사람의 의도가 담기게 되고 또 이미지의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상이나 사색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②는 사진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그 구도에 대해서만 평가하고 있으므로, 사진을 통해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글의 논지에서 벗어나 있다.

①은 태극기와 건물의 상징성에, ③은 찍은 사람의 의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④는 사진 속 장면의 과거 사건에 대해서 상상하고 있으며, ⑤는 사진의 기록물로서의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고 있으므로, 사진을 통해 세상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이 글의 논지에 부합한다.

49. [출제의도] 글을 읽고 비판하는 글쓰기

A에 들어갈 내용은, 사진이 세계를 잘못 이해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처럼 사진은 한 순간의 모습만을 담을 수가 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 의하며, 이 한 순간의 장면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은, 사진의 장면을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지니지만,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함께 지닌다. 바로 이 점이, 찍는 사람의 의도에 의해 사실이 왜곡되는 것과 함께, 사진이 세계를 잘못 이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의견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50. [출제의도] 비유적 표현의 의미 파악하기

사진을 '상형 문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진과 상형 문자가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공통점들은 ㉠의 앞부분에 언급되어 있듯이, 이미지를 담은 기록물이고, 이미지를 기호 형태로 저장하며, 심리적 특성을 지니고, 영상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 등이다. 그러나, 상형 문자는 과학 기술 발전의 산물은 아니므로, ④는 그 공통점에 포함시킬 수 없다.

51. [출제의도] 글을 읽고 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평가하기

㉡에서 '대체물'은 사진에 찍힌 대상을 대신하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사진이 이런 기능을 하려면 대상이나 사건의 모습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④의 경우에는, 완전히 새로운 인물로 창조한 모습이므로, 현실 속의 어떤 대상을 대신할 수는 없다.

[52~55] 권필, '주생전'

52. [출제의도] 전체 내용 구조와 관련하여 지문 내용 이해하기

주생과 배도가 어릴 적 친구였다는 <보기>의 A 항목을 참조할 때, 배도가 주생에게 맹세의 글을 써 달라고 요구한 것이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② (다)에는 주생이 담을 넘어 선화의 방 앞에까지 이른 내용까지만 소개되어 있지만, <보기>의 E를 참조할 때 그 후 두 사람이 인연을 맺고 계속 만나는 장면이 (다)의 뒤에 소개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의 H 이후의 내용을 볼 때, 주생과 선화가 혼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소설의 내용이 종결됨을 알 수 있다. ④는 (나)와 C의 내용을 통해서, ⑤는 (다)와 D의 내용을 통해서 각각 짐작할 수 있다.

53. [출제의도] 조건에 맞게 화답하는 시 창작하기

①은 선화의 노래에 사용되었던 '대밭'이라는 소재를 활용하고, 자신을 '고운 님'이라고 말함으로써 선화를 연모하는 자신의 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에 부합한다.

②, ④, ⑤는 선화의 노래에 쓰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만, 원망이나 한탄 등을 드러냈을 뿐 선화에 대한 주생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또, ③은 사랑의 정서를 드러내기는 했지만 선화의 노래에 사용된 소재를 활용하지 않았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54. [출제의도] 고전 소설을 읽고 세부 정보 확인하기

배도가 사건의 전모를 알게 된 후 쓴 편지라고 가정했으므로, (나)와 (다)에 소개된 사건의 정황을 근거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나)의 내용을 참고할 때, 주생이 처음 선화에게 반한 것은 그녀의 미모 때문이었지 높은 학식 때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주생이 선화의 학식에 미혹된 듯하다는 ③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55. [출제의도] 고전 소설을 읽고 소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주생이 목숨까지 내놓을 작정을 하고 선화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보아, 이후 선화를 만나러 올 때 이보다 더 심리적 갈등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오히려, 만남이 반복될수록 '담'이나 '주렴'의 경계선으로서의 의미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담'과 '주렴'은 주생과 선화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둘이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경계선이다. 또한, (다)에서 주생이 담을 넘기 전에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를 하는 것으로 보아, 심리적 갈등이 컸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56~60] 김명진, '대중과 과학기술'

56. [출제의도] 글을 읽고 글쓴이의 의도 추론하기

글쓴이는 (가)에서는 '기술이 내적인 발전 경로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그리고 글쓴이가 제시하고 있는 비판 논거의 핵심은 기술이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사회적 이해관계의 총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보면 기술은 사회적으로 통제가 가능한 대상이 된다. 따라서 <보기>로 제시된 '수업의 개요와 목표'에서 '실천'은 기술을 사회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실천을 의미하게 되며, 글쓴이는 이 수업을 통해 이러한 실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찾고 있는 것이다.

57. [출제의도] 글을 읽고 세부 정보 확인하기

(가)에서 글쓴이는 '기술이 내적인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따르면, 인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 기술의 발전 경로'를 추적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나)에서 글쓴이는 '기술이 사회를 결정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주장의 근저에는 '기술을 스스로 진화하는 실체'로 여기는 사고가 놓여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두 견해는 기술을 인간 사회와 독립된 자율적 실체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임을 알 수 있다.

58. [출제의도] 글을 읽고 논증 방법을 파악하여 비판하기

(가)에서 글쓴이는 '기술이 내적인 발전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통념을 비판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 연구 결과를 논거로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인용하고 있는 연구 결과를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글쓴이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59. [출제의도]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여 활용 방안 평가하기

[B]는 '거대 기술시스템'의 한 예이고, [C]는 기술이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나)에 의하면 이러한 거대 기술시스템은 사회구성원들의 통제에서 벗어난 자율적 실체로 보일 수도 있다. 글쓴이는 이러한 지적이 얼핏 보기에는 타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기술은 사회로부터 벗어나 완전히 자율적인 실체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부분적으로'든 '결정적으로'든 기술은 사회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두 자료는 '기술이 사회를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⑤와 같이 활용할 수는 없다.

6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문맥으로 보아 ⓒ의 '나아가다'는 '어떤 정도를 넘어 확대되다'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비약'과 같은 말이 적절하다.